

미국서 원톱 뛰는 손흥민... 흥명보호서도 '손톱' 굳힌다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33)이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에 이어 흥명보호에서도 중앙 공격수로 기용될 전망이다.

흥 감독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에 나설 축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며 손흥민을 발탁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 한국은 내달 7일 오전 6시(한국 시간) 미국 뉴저지주 헤리슨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15위' 미국과, 10일 오전 10시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 파크에서 '13위' 멕시코와 두 차례 맞대결을 벌인다.

손흥민이 지난 6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이후 3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단다.

올여름 손흥민은 2015년부터 10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LAFC에 전격 입단했다.

처음 밝은 미국 무대이지만, 오랜 기간 EPL에서 경쟁했던 손흥민이기에 적응기도 필요 없었다.

10일 시카고 파이어전(2-2 무)에선 패널티킥을 유도했고,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에선 첫 도움을 기록했으며, 24일 FC 달러스를 상대로 데뷔골을 터뜨리며 월드컵급 능력을 뽐냈다.

눈여겨볼 점은 손흥민이 토트넘 시절 주로 왼쪽 측면에서 뛰었던 것과 달리 LAFC 입단 후엔 중앙 공격수로 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축구대표팀에서도 스트라이커 역할을 곧잘 수행했던 터라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흥 감독도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서 '손



손흥민, LAFC 입단 후 최전방 스트라이커 출전 축구대표팀 명단에도 '미드필더' 아닌 '공격수' "오래 뛰는 것보다 결정적인 역할 하는 게 중요"

톱(Son-Top)'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축구대표팀 명단 발표 때마다 '미드필더'로 분류됐던 손흥민이 오현규(헝크), 오세훈(마치다)과 '공격수'로 묶인 점에서 가능성이 느껴진다.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 나선 흥 감독은

이와 관련해 "손흥민은 지난 월드컵 예선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뛰는 적이 있다. 또 손흥민이 뛰는 측면 공격을 다른 젊은 선수가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이제 얼마나 오래 뛰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걸 충분히

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구대표팀은 내달 1일 오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K리그 시즌이 한창인 만큼 출국 전 소집 훈련은 진행하지 않는다.

본진은 흥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프로축구 K리그 중심 국내파 위주로 꾸려진다.

손흥민을 비롯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해외파들은 미국 현지에서 합류한다.

흥명보호는 미국과 멕시코를 차례로 상대한 뒤 11일 귀국할 예정이다. /뉴스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팀, 전국대회 금 2·동 1 쾌거 국무총리기 금메달·동메달 각 1개, 종별선수권 금메달 1개 획득

순천시청(시장 노관규) 소프트테니스팀이 제61회 국무총리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와 2025 전국 소프트테니스 종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부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포함한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육천 스포츠테니스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가 주최한 전국대회로, 60여개팀 500여 명이 참가했다.

제61회 국무총리기 대회에서는 남자 개인복식 결승에서 류태우, 이하늘 선수가 순창군청 윤형욱과 김병국 선수를 4:2으로 이겨 금메달 획득, 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2025 전국 종별선수권대회에서는 남자 개인복식 결승에서 류태우, 임민호 선수가 대전 동구청 김현수, 이도근 선수를 4:1로 이기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무더운 날씨에서도 매일 훈련하는 선수들과 지도자의 훌륭한 가르침이 합쳐진 소중한 결과로, 출전하는 대회마다 입상하여 기쁘다"며 "앞으로 국내외 대회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팀은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순창에서 열리는 2025년 한국실업 추계연맹전에 출전할 예정이다.

순천/정영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아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티인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흥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흥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후반기 꼴찌' 추락하는 KIA... '연패 스토퍼' 임무 맡은 양현종

후반기 9승 1무 18패... 최악체 키움-12연패 롯데보다 승률 낮아

프로야구 하반기 대반격을 꿈꿨던 KIA 타이거즈는 부진을 거듭한 끝에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 위기에 빠진 KIA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출격하는 토종 에이스 양현종이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통합 우승을 달성한 KIA는 하반기 시작과 함께 큰 주목을 받았다. 주축 선수들이 연달아 부상으로 이탈했음에도 전반기를 4위로 마쳤고, 하반기 첫날인 지난달 17일 주전 야수 나성범, 김선빈과 선발 투수 이외리가 나란히 복귀하면서 천군만마를 얻었다. 아울러 지난해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인 김도영까지 부상을 털어내고 지난 2일 1군에 합류하면서 반격을 예고했다.

그러나 KIA는 김도영이 복귀 후 3경기 만에 다시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으로 이탈하는 대형 악재와 마주했다. 올해만 햄스트링을 세 차례 다친 김도영은 남은 정규시즌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

이후 KIA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3연전을 싸늘이하며 여수선한 분위기를 바로 잡은 것처럼 보였으나 9위 두산 베어스에 3연패를 당한 뒤 최악의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1승 2패에 그

쳤다. 아울러 LG 트윈스와의 지난 주말 3연전에서는 빈공에 허덕이며 스윙패를 당했다.

KIA는 후반기에 치른 28경기에서 9승 1무 18패(승률 0.333)를 기록, 10개 구단 가운데 후반기 승률 꼴찌에 머물렀다. 리그 최악체로 꼽히는 키움(11승 1무 18패·승률 0.379)과 12연패를 당했던 롯데 자이언츠(12승 2무 18패·승률 0.400)보다도 승률이 낮다.

결국 KIA의 순위는 8위까지 추락했다. 공동 4위 롯데, KT 위즈와는 3경기 차로 격차가 크진 않지만, 지금 추세라면 가을야구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흐름 전환이 시급한 KIA는 26일부터

시즌 동안 SSG 랜더스와 원정 3연전을 치른다. 26일 SSG전 선발 중책은 양현종이 맡는다.

팀의 5연패 사슬을 끊어내야 하는 양현종은 올 시즌 23경기에 등판해 7승 6패 평균자책점 4.24를 작성했다. 후반기에는 KIA 선발 투수 중 가장 페이스가 뛰어나다. 양현종은 후반기에 나선 5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1.23으로 맹활약했다.

양현종은 SSG와 4경기에서 승리 없이 2패를 떠안았고, SSG전 평균자책점이 5.40에 그쳤으나 최근 2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며 강한 면모를 보였다. /뉴스

광주세계양궁대회 성공기원 오프닝 쇼 '활의 나라'

내달 3일 오후 6시 30분 금남로... 고싸움놀이야양궁 소개

9월 5일 막을 올리는 '광주 2025 현대 세계양궁(장애인)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개막 축하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는 다음달 3일 오후 6시 30분 전 일빌딩245부터 금남로공원에서 세계양궁 선수권대회와 장애인대회 성공 개회를 기원하는 오프닝 쇼 '활의 나라'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오프닝 쇼는 국가무형유산 제33호인 '고싸움놀이'로 시작된다. 고싸움놀이는 1986년 서울 아시아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서 시연됐던 전통놀이로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대회의 문을 연다.

이어 광주 양궁과 5·18민주광장의 역사적 의미를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광주시립창극단의 풍물 공연과 초대가수 알리노라조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축사가 최소화됐으며 오프닝 쇼가 펼쳐지는 금남로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이연 대회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오프닝 쇼는 양궁의 우수성과 대회 결승이 열리는 5·18민주광장의 역사성을 전

2025. 9. 3. 18:30 ~ 21:00 금남로 특별무대

광주 2025 현대 세계양궁(장애인)선수권대회 세계양궁(장애인)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오프닝 쇼 '활의 나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기자